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 🍷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더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간음 현장에서 잡혔더라도 한 번의 행위는 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노아는 한번 롯은 두 번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술주정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불경스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얻으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본 것에 근거해 누군가를 성미가 급하다거나 혹은 손버릇이 고약하다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를 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몬은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광대해서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절대 어제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책망해야 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능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파렴치하고 악명 높은 죄인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재미있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늑대가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늑대에 맞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버나드 벵글리 편집>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